

십자가의 기별(복음)



2과. 2026년 7월 11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전 1:18)



고린도전서 1장 17-31절은 십자가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지만, 1세기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극악한 범죄자가 받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상징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 고백을 들은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정신 나간 나약한 사람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호소를 듣고 마음을 연 우리에게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고전 1:18, 30)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복음)은 미친 짓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기별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

하나님의 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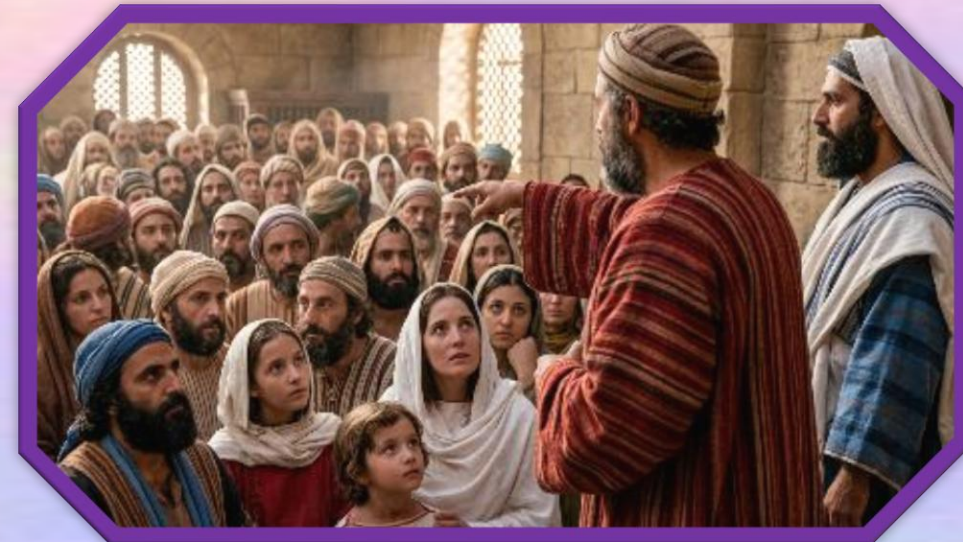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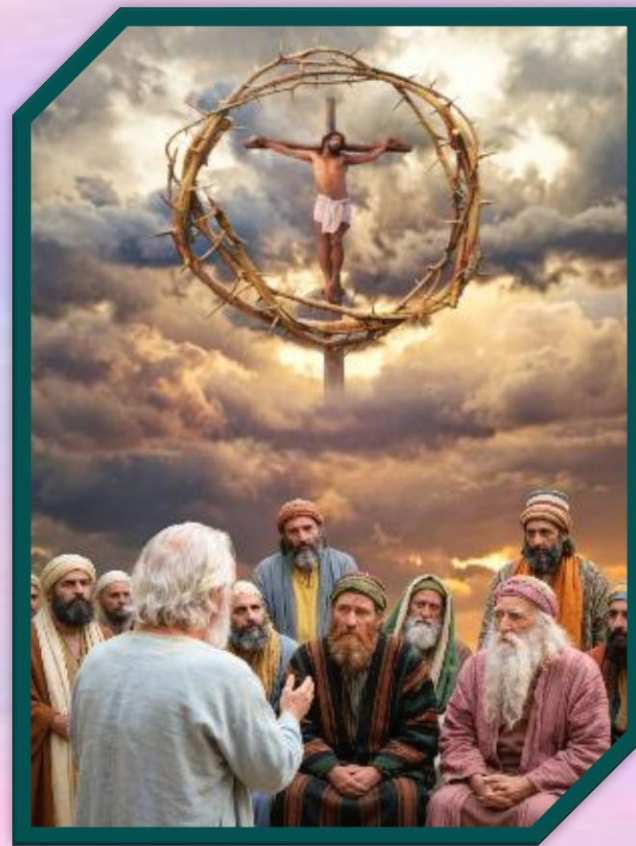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전 1:24)

바울은 아테네의 수준 높은 시민들을 설득하기 위해 사람의 지혜로 연설했습니다. 그 후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만을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전도자로 세우셔서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않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게” 하려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고전 1:17).

바울이 전파한 거룩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지혜로운 사람들의 지혜를 없애고 총명한 사람들의 총명을 쓸모없게 하며(고전 1:19),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듭니다(고전 1:20).

사람들의 모든 논리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어리석게 들리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고전 1:21).





고린도전서에서 '모리아'(mōria: 광기, 어리석음, 우매함)이라는 그리스단어가 다섯 번 나옵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고전 1:18)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고전 1:21)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고전. 1:23)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에게는...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이...어리석음” (고전. 2:14)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것” (고전 3:19)

십자가의 (복음)은 미친 짓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돌이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고전 1:23)



십자가의 복음은 멸망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모르고(이방인), 이 세상의 일만을 생각하고(육에 속한 사람), 오직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신 나간 짓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구원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께서 보시는 대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전 1:18)

십자가는 인간의 가장 추악한 현실과 하나님의 최고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고전 1:18).

인간의 최악

하나님의 최고

■ 미친 짓

■ 거절함

■ 자기 파괴

■ 파멸

■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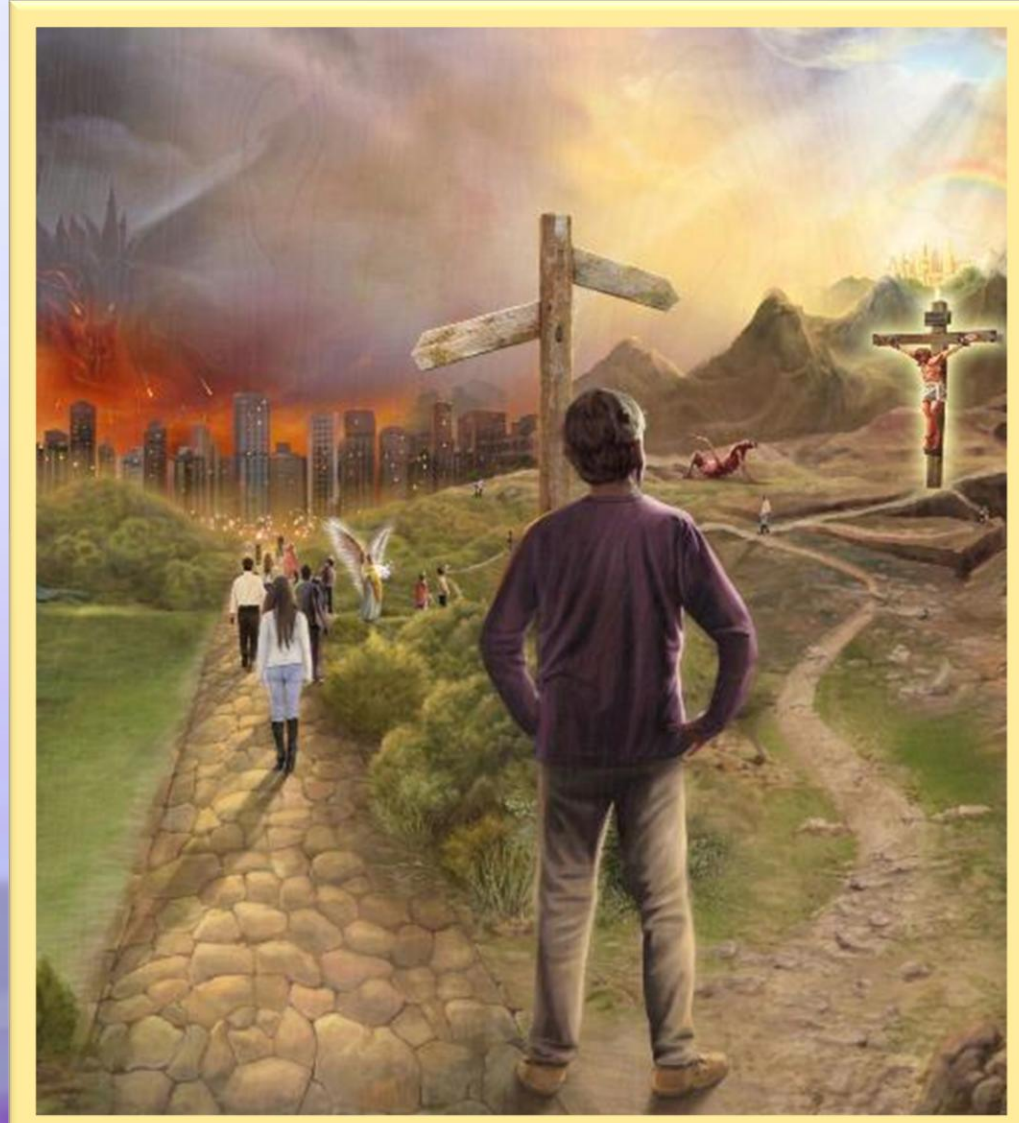
■ 받아 주심

■ 용서

■ 구원

십자가의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결실을 거두고, 결국 자신들이 거절했던 예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골 1:20; 벰전 2:24).



십자가의 기별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고전 1:21)

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입니까(고전 1:21-24)?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의 탄압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게다가 유대인은 나무에 매달린 사람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간주했습니다(신 21:23).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이방인들도 같은 결론, 즉 십자가는 미친 짓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에게 십자가는 특별했습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섬기던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이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던 복음의 관점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기별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낮아지셨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나아가고자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고전 1:25)

하나님이 바보스럽거나 약한 점이 있으실까요? (고전 1:25)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완전함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즉, 만의 하나 하나님이 어리석은 생각을 하신다 해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시며, 하나님의 논리에 약점이 있다고 가정해도 인간의 가장 강력한 논리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여 지혜를 짜낸다고 해도 인류를 구원할 방법을 만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자들”(고전 1:18), “믿는 자들”(고전 1:21),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고전 1:24)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감동하실 때 응답하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갈보리의 십자가를 거룩한 역사적 사건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장소를 신성한 곳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십자가가 혐오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인류의 구원자로 내세우는 기별은 당연히 조롱과 반대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십자가의 복음이 사람을 고상하게 변화시킨다거나, 인간의 구원에서 십자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으로 취급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한 것은 십자가였습니다...바울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건을 통해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을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보고 그 거룩한 감화에 자신을 맡길 때 마음의 변화가 시작되며,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엘렌 화잇 (사도행적. 245)